

# 사기회생·사기파산 인정, '적극성'이 갈라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과 파산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손괴,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저지르면서 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를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회생죄나 사기파산죄로 정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회생,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몰래 재산을 빼돌렸거나 실제 채무액을 부풀려 변제율을 낮추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사기회생죄나 사기파산죄를 인정하고 있을까?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A는 최초에는 파산을 신청했으나 채권자들의 이익제기 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A는 회생절차 신청 전 W, X, Y의 이름으로 주식,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을 차명으로 취득한 상태. 또 마치 Z에 대해 2억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냈다. 이후 법원에 Z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금액에 비해 A의 재산은 현금 900만원 정도가 전부라는 취지로 작성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된 것이다. 법원은 당연히 A의 행위를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킨 것으로 보아 사기회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노3231판결).

다른 사례를 보자. B는 2003년경 아버지의 사망으로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상속분을 재산에서 제외하고 2005년 11월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했다. 이후 사기파산이 문제되자 B는 아버지가 사망한 2003년경에는 협의상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가 파산신청을 한지 3년이 지난 2008년경에야 가족들간 협의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단순한 상속재산누락행위를 사기파산죄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

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사기파산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판결).

결국 사기회생, 사기파산죄 해당 여부를 가르는 키워드는 '적극성'이다. 단순히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법원은 이를 '소극적 행위'라고 표현한다). 처벌대상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차명으로 돌려놓거나,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액의 상당부분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채권자들을 여럿 만들고, ▲소유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는 등 해당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사기회생이나 사기파산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언제나 회생, 파산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절차 진행에 대한 부동의의사를 밝힐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로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재산 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바른

# '태블릿 교과서', 사라진 사각거림



**김서현  
(사업부)**

10여 년 전 대학생들이 두꺼운 전공책에 필기를 했던 것과 달리 최근 대학생들은 태블릿에 저장된 전공책 이북(e-book)을 보며 전용펜슬로 필기를 한다. 물어보면 간간히 공책에 필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강의실에 몇 명 될까 말까라고 한다. 내년부터는 더 나아가 초·중·고에도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DT) 시대가 온다. 수업 풍경을 상상하면 더 더욱 어색함이 느껴진다. 고사리 손으로 태블릿에 저장된 교과서를 넘긴다니 상상도 되지 않는다. 스마트폰 중독을 우려한 청소년보호자들이 최대한 늦게 스마트폰을 사주려 하다 보니 어린애들이 울고 떼

쓴다는 이야길 들은 게 얼마 전인데 아예 태블릿으로 수업을 한다니. 기성세대여서일까, 나는 여전히 종이책을 읽으며 연필로 줄을 긋는다. 사각사각 그어지는 소리도 좋고 책이라고 하는 매체가 주는 냄새와 감촉, 어떤 생생함이 좋다. 이북을 읽을 때면 내가 책을 읽는 건지, 필 읽는 건지 스스로 어색함을 느끼곤 한다. 그래서 더욱 요즘 광경이 낯선가 보다.

그러나 낯설다고 말하면서도 나 또한 정말 못말리는 유튜브 중독자다. 기껏 책은 종이로 읽으면서 몇 장 넘기기 무섭게 다시 스마트폰을 쥐고 구독 중인 채널에서 새 영상은 올라왔는지 들여다 본다. 쇼츠라도 보면 그날은 끝났다. 하루종일 도대체 의미를 모를 쇼츠를 무한 스크롤링 한다. 신기한 쇼츠를 보며 '우와,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면 난 이걸 왜 보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멈추지

는 못 한다. 스마트폰으로 아무것도 하질 않으면서도 괜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불안해서 얼른 손에 잡으려고 한다. 다음 버스가 언제 오든 사실 중요한 일도 아닌데 굳이 앱(APP)을 켜서 버스가 언제 오나 살피고 딱히 먹고프지도 않으면서 배달 앱을 켜서 배달 음식을 시키고 짹짹 배부름만 느낀다.

나는 대학을 다니던 중 아이폰3GS가 한국에 들어오며 스마트폰의 시대를 맞았다. 처음에는 신기한 장난감으로 느껴졌지만, 날로 늘어나는 앱 만큼 나는 스마트폰에 목을 매달게 됐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괜찮을까? 아직 두뇌 성장이 한창인 아이들은 계속해서 태블릿 PC를 봐도 괜찮을까? 많은 우려 속에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실험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문득 아날로그(Analog) 시대가 그리워진다. /seoh@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12월 2일 (음 11월 2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 **48년생** 기다리던 문서라도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60년생** 돈 버는 데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72년생** 멀리 있는 가족보다 친구의 위로가 감사. **84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겁다.
- 37년생** 나이 따지지 말고 재혼에 도전해보자. **49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니 휴식이 필요한 날. **61년생** 사랑 믿음 소망을 갖고 살자. **73년생** 멋진 내지 말고 가방 들고 도서관이라도 가서 공부. **85년생** 병 주고 약 주는 친구가 밉상.
- 38년생** 오랜 기다림으로 마음이 아프다. **50년생** 재물로 성과를 내서 또한 명예가 높아진다. **62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그림자. **74년생** 어젯밤 꿈도 좋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하는 일도 시원. **86년생** 어제의 동자가 오늘은 적이 되니.
- 39년생** 외출해서 유혹이 있어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51년생** 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해라. **63년생** 남의 흉을 감추려면 나에게 유리. **75년생** 진취적 행동이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87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가 들어온다.
- 40년생** 현재 생각에 들떠있는 거품은 곧 사라지니 현실에 직면해야. **52년생** 다소 무리일지라도 도전을 해보자. **64년생** 길 떠나려는데 지팡이가 부러진다. **76년생** 시작이 좋으니 결과도 좋다. **88년생** 다투어 생기기 쉬운 날이니 자중을.
- 41년생**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훨씬 수월. **53년생**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을 반드시 지어 한다. **65년생** 항상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 **77년생**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다. **89년생** 도움을 줘도 줄수록 당연시하니 마음을 비워보자.
- 42년생** 고단한 삶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54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자랑해도 될 터. **66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일을 하라. **78년생** 주식에 무작정 투자하지 말고 터득하면서 해보도록. **90년생** 배려하면 내게도 득이다.
- 43년생** 동료와 협업이 좋은 성과를 낸다. **55년생** 갈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67년생** 붉은색 숫자가 행운을 준다. **79년생** 지금 시작하는 선택이 내일을 기쁘게 한다. **91년생** 혼자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때.
- 44년생**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도 무시된다. **56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불운을 극복하는 방법. **68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러서 돌아오니 이익. **80년생** 아프기 전에 실비보험을 들어놔야 안심이다. **9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
- 45년생** 원칙을 벗어난 투자는 금물. **57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9년생** 생각을 바꾸면 행동하기 편하다. **81년생** 오랜만에 여유의 시간이 생겨서 영화 보기 좋은 날. **93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
- 46년생** 직장 후배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58년생** 근거 없는 칭찬에 휘둘리지 마라. **70년생** 신세 졌던 사람에게 빚을 갚는 날. **82년생** 처음부터 누구나 잘할 수 없는 것처럼 실수도 있게 마련. **94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주변 조언을 구하라.
- 47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 **59년생** 격한 말로 상대를 공격하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71년생** 갈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83년생** 사고의 폭을 넓혀야 바로 볼 수 있다. **95년생** 이성간에 관심이 지나치면 간섭이 되기마련.

## 김상회의四季 자기 뜻대로 사는 딸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딸이 네일샵을 열었다. 딸의 미래가 장사라고 해본 적도 없으니 곧 망할지 모른다면, 망하면 돈과 시간만 날릴 테니 미래가 막막하다고 걱정이다. 부모의 직업은 두 사람 모두 대학교수다. 부모 생각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번듯한 직장인으로 살던지 공부를 더 해서 전문직으로 살았으면 하는 거였다. 딸의 사주를 보니 재성을 보호하는 정관이 있다. 정관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겁재를 극하고 재성을 보호하기도 한다. 재성이 약한데 일간이 강한 사주는 신강제약이다. 여기서 정관이 비겁을 극하면 비겁이 재성을 흔들지 못한다. 빛나는 것은 월月的의 신금申金에 투간된 임수壬水의 조합으로 도세주옥淘洗珠玉의 구조이다. 재물로는 묘卯와 신申 태지胎地의 조합이 있어 술책도 있으면서 끝없이 만들어내는 재능을 발휘한다.

딸은 사업이 잘되고 있을 것이다. 하여 지금 따님은 돈이 들어올 운세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인다. 네일샵 열고 2년 됐는데 벤츠 자동차를 샀단다. 장사가 그만큼 잘 된다는 뜻이고 운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그런데 부모는 걱정이다. 교수로 살아온 부모는 자기들이 살아온 길에서 모든 걸 재단하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잘 나간다고 해도 그냥 직장인이다. 그런데 딸은 자기 뜻대로 살아갈 발판을 마련했다. 거기다 수입도 또래 직장인들 연봉의 몇 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꼭 취업을 해야 하는 걸까. 요즘 젊은 세대는 상식을 넘어서 다르게 남들 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 길을 일구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 딸은 성격이 적극적이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서 목표의식이 강하고 성실하며 사업가로 적합하다. 조만간 네일샵에 이어 부동산으로 확장하려 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해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9	3	1
4		3	9	
			2	7
	7		2 6	
				8
2		8 5		1
6		7		
	5	8		6
9	2	4	1	

3	4	9		7
		5	7	
2	6		3	
9				8
	5	9	2	6
7				9
			1	5 4
	3	8		
3		6	7	2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6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6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